주간 책 읽을거리

2026년 11월 22일

이번 주에 소개된 신학·성서학, 철학, 경제 분야의 새 책들입니다. 깊은 배경지식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도록, 왜 이 책이 눈길을 끄는지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신학 · 성서학

장준식, 『고린도후서를 당신에게』 (샘솟는기쁨) [최근 소개]

CBS 노컷뉴스 '새로 나온 책' (11월 17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겪은 갈등과 상처, 눈물과 위로를 담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지만,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난다고 소개됩니다. 이 책은 그 편지를 따라가며 '약함 속에 감춰진 복음의 역설', 곧 강해지라고 다그치는 세상에서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는 주장을 풀어냅니다.

출처: christian.nocutnews.co.kr/news/6607839

이지혜, 『특강 히브리서』 (IVP) [최근 소개]

CBS 노컷뉴스 '새로 나온 책' (11월 17일)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던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글로 알려진 신약성경의 한 권입니다. 소개 기사에 따르면 이 책은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는 이를 '상속자'로 빚어 가는 훈육 과정으로 읽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강의하듯 차례로 풀어 가는 해설서로, 같은 본문을 고난의 의미라는 질문으로 읽어 보고 싶은 독자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출처: christian.nocutnews.co.kr/news/6607839

철학

버트런드 러셀, 『부수고 희망하고 다시 부수기』 (노윤기 옮김) [최근 소개]

연합뉴스 신간 (11월 16일)

러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950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가 자신의 투쟁적인 삶을 돌아보며 쓴 글 수십 편을 모은 것으로, 철학자가 시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www.yna.co.kr/view/AKR20261116103300005

에티엔 보노 드 콩디야크, 『감각론』 (이충훈 옮김, 비) [최근 소개]

한겨레 '11월 20일 학술 새 책' (온라인 11월 19일)

콩디야크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정신 활동이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친 철학 고전입니다. 저자는 대리석 석상에 감각을 하나씩 부여해 보는 사고 실험으로 자아를 탐구하는데, 특히 촉각을 통해 자아와 외부 세계를 구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앎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대표적인 답 가운데 하나를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번역본입니다.

출처: 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288224.html

경제

강승준·유재수, 『세계사를 뒤흔든 경제 서사』 (인물과사상사) [최근 소개]

조선일보 '북카페' (11월 21일자)

수천 년의 세계사를 화폐와 금융, 자본과 권력의 관계로 읽는 책입니다. 전쟁과 통치 권력에 기반한 '패권 질서'와 화폐와 교역에 기반한 '시장 경제 질서', 두 질서의 충돌과 협력이 국가의 흥망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꿨다는 관점으로 역사를 풀어갑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를 긴 역사 속에 놓고 보고 싶은 독자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출처: 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6/11/21/3A25SYRDYJCSFPTFX3AWQSIKAI/

김민철, 『탐욕의 사회에서 자유·평등이란 불가능한 공화국』 (창비) [최근 소개]

분류: 경제·정치사 | 매일경제 '신간 다이제스트' (11월 20일)

프랑스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공화국을 낳았지만, 왕을 몰아냈다고 공화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업이 커지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어떻게 함께 지킬 것인가가 새 과제가 됐습니다. 저자는 '경제적 탐욕과 사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화국은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와 정치가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를 역사로 묻는 책입니다.

출처: www.mk.co.kr/news/culture/12214703

읽기 전에

이 목록은 이번 주 언론의 신간 소개 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각 책을 직접 읽고 평가한 서평이 아닙니다. 소개문은 기사가 전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 옮긴 것이며, 책의 난이도나 품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이번 호의 모든 책은 '최근 소개'입니다. 기사로 소개된 책이며, 정확한 출간일은 이번 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출간은 기사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